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서 수중발사계획을 청취하시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사령이 하달된 즉시 잠수함에는 전투경보가 울리고 함은 최대발사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하여 섬멸의 탄도탄을 쏘아올렸다.

잠수함에서 솟구친 탄도탄은 거대한 불줄기를 토하며 창공 높이 날아올랐다.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 행발사체계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 고체발동기를 이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 특성, 계단열 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

확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굴함없이 뛰고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기상인 양 충천하는 탄도탄의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주체조선의 강력한 핵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었



다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면서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홀륭히 완성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히 강화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남조선파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때나 마음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신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국

방과학부문에서 이룩한 이 경이적인 성과는 과학기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려는 열렬한 충정과 고결한 당적량심을 지니고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와 어머니당에 드리는 또 하나의 고귀한 로력적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핵공격 수단들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함으로써 핵에는 핵으로 맞설것이라는 우리 당의 전략적기도

를 과학적실천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우리 당이 결심만하면 그 어느때건 미제와 남조선파뢰역적들에게 핵타격을 할수 있게 핵무력강화의 발걸음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귀항하는 전략잠수함을 항구에서 맞이하시고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전사들과 해군장병들과 함께 혁사적인 성공의 날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기쁨도 시련도 이겨내며 헤쳐온 탄도탄개발의 고심참담했던 나날들이 눈에 밟혀와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이들을 바

라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주체조선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결정체이며 고귀한 땀과 지혜, 정력과 재능의 산물이라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

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높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개회함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의 위력이 최고의 경지에서 과시되고 온 나라 천만군민의 충정의 70일전투가 결속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도당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당지도기관과 당 제7차대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도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도당대표회들에서는 당 제6차대회 이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도당위원회가 걸어온 승리적로정을 궁지높이 총화하였으며 당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였다.

도당대표회들에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령도력을 백방으로 높여 주체조선의 존

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였다.

도당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한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 제7차대회 대표자, 방청자로 선거, 추천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뚜렷이 표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2016년 5월 6일

『제도전복』, 『체제붕괴』를 망상하는 적대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자위적수단을 천백배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수호의 길이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침략세력을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수 있는 장비개발과 보유는 공화국의 드림없는 국가방위의지이다.

조국의 바다가 격랑을 일으키였다.

최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가 있었다. 작년 5월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함내소음준위, 발사반응력, 탄도탄의 수면출수속도, 자세각 등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가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는 것이 검증확인된데 이어 최대발사시점에서의 탄도탄발사체계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이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계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 계단별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그날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력한 핵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히 강화되었다고, 이제는 남조선피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때

바다는 격랑을 일으킨다

나 마음먹은대로 멀적의 비수를 꽂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핵공격수단들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하여 핵에는 핵으로 맞설것이라는 우리 당의 전략적지도를 과학적 실천으로 받들며 그 어느때인 미제와 남조선피뢰역적들에게 핵타격을 가할수 있게 핵무력 강화의 발걸음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철의 의지, 정력적인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군대는 총과 같은 전투기술

기재를 가지고 상대와 싸우는 무장집단이다. 최첨단과학기

술의 집합체인 현대적무장장비들이 활용되고있는 현대전에서는 사상정신력과 함께 군사기술면에서도 상대를 결정적으로 압도할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나라의 구체적 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위력한 주체무기, 주체탄을 개발보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 지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

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은 현저히

높아지게 되였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활동하면

서 작전시 상대의 수송선단이나 함선에 대해 불의적으로 기습공격하는 전투함선이다. 잠수함은 오늘날 현대전의 요구

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

로 핵동력파로케트를 설비하면서 핵무력의 3대구성요소의 하나로 되고 해군의 기본풀간 무력으로 되었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상대의 핵공격기지나 지휘중추 등 중요 전략대상들을 공격하는 위력한 타격수단의 하나이다.

공화국의 해군이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함으로써 이제는 공화국의 평해는 물론 임의의 수역

에서 도전세력을 제압할수 있

는 위력한 핵타격수단을 가지

게 되였고 핵에는 핵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공화국의 결

심과 의지가 빙밀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핵

공격능력이 저들민의 힘이 아

니며 수중타격수단이 저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는것을 적대세력은 똑바로 알 때가 되였다.

도전세력의 침략에 대비한 조선인민군 해군의 제압수단은 전략잠수함수중타격수단에 만 그치지 않는다.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 할수 있는 세계적수준의 전략무기개발보유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지도밑에 개발되어 실전배미된

초정밀화된 신형반함선로케트를 비롯하여 평해에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상대의 함선집단들과의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수 있는 모든 타격수단들은 언제든지

불을 토할수 있게 만번의 결전태세에 있다. 때로는 잠수함기지를 찾으시고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내훈련도 보시고 잠수함승선지도도 하시며 수중작전능력을 높이며 기지의 현대화, 요새화실현에서 나서는 파업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각 군종부대들의 섬상률전투훈련에 참가한 군함에 올라

바다에 나가시여 해병들의 훈련성과를 치하하시고 고무격려하신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현대해상작전의 요구에 맞게 함선의 속도화, 장비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그 어떤 규모와 형태의 수상작전이나 수중작전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해군무력으로 장성강화되었다.

정보화전쟁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전은 고도로 확대된 립체전, 정보전, 비대칭전, 정밀

타격전, 단기결속전으로 수행되고있다.

현대전의 양상과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최첨단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적으로 둘박할 여지없는 우리의 타격수단들의 첨단수준의 높이는 우리 국력의 높이라고 우리 조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생산하도록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도전세력의 상용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에는 자기식의 전쟁으로, 핵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에는 자기식의 핵타격전으로, 싸이버전에 의한 공격에는 자기식의 평활한 싸이버전으로 최후멸망을 안기자는것이 공화국의 배짱이고 의지이다.

수중에서 평해상으로 기세차게 솟구쳐오른 잠수함탄도탄시험발사를 놓고 남조선호전세력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이 발사하는 탄도탄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단은 별로 없다.』고 자인하였다. 미국과 추종세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거들며 『도발』이다, 『유엔결의위반』이다, 『설쳐대며 『대응』을 운운하여도 강력한 타격수단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개발되어 침략의 아성을 정조준하고있다.

멸적의 주체무기가 지키고 섬멸의 주체탄이 솟구쳐오르는 조국의 푸른 바다는 격랑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장철수



땅크는 인민군대의 기상이라고 하시며

조국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

지난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땅크병경기대회—2016』을 보시였다.

그날 땅크병부대, 구분대들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여 기동타격부대들의 실전능력을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둔 경기를 보신 원수님께서는 땅크는 인민군대의 기상이라고 하시면서 땅크병싸움준비에서 나서는 파업을 밝혀주시였다.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땅크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할테 대한 문제, 산악과 진펄, 강하천을 단숨에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할테 대한 문제, 땅크운전기술과 사격술을 부단히 높이이는 것과 함께 승조협동작을 완성할테 대한 문제, 만능승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할테 대한 문제 등 땅크병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파업을 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그 어느 훈련도 소홀히 하지 말고 병종, 전문병훈련을 비롯한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군인정신, 군인 본때, 군인기질로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에 즐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였을 때였다. 지난해 인민군대가 거둔 성과를 총화하시고 올해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면서 그이께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인민군대가 하여야 할 과업에 대하여서도 밝히시였다. 올해에도 인민군대가 부강조국건설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는 항상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구호를 들고 힘찬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군대가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해나갈테 대한 당중앙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문명강국건설의 뿌리가 되고 돌격대가 될 때 인민의 재부가 차넘치고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라는것이 그이의 뜻이였다.

본사기자

불변의 진리, 승리의 길 (2)

강병은 선군의 길에 있다

예나지금이나 우리 나라의 정치학적위치는 다름이 없지만 국력과 존엄은 오늘날 최경지에 이르렀다. 강국의 징표로 되는 핵을 보유하였고 국력의 종합체로 보는 위성을 개발발사하고 있다. 이제는 침략세력이 기나긴 세월 핵으로 위협공갈하던 때가 영영 막을 내리고 무변광대한 우주도 이제 더는 대국들만의 독점세계가 아니다. 우주만리에 조선의 자리길이 있다.

이 기적, 이 현실은 혁사가

준 우연도 아니다. 민족의 운

명과 지위에서의 국적인 전환은

총대중시, 군사중시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총대의 힘

으로 천사만사를 해결한 위대한 선군의 덕이다.

국력중의 국력은 강한 군력이라는 것은 혁사가 새겨주는 교훈이고 철리이다. 약자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게 되는 것처럼 나라가 힘이 약하면 남에게 굴종하게 된다.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보아도 고구려가 동방의 천년강국의 위용을 멸쳤던 것은 군력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시기 집권세력이 사대와 외세의존을 국책으로 삼고 군사를 훌시한탓에 국력은 나날이 쇠약해졌다. 1898년에 조선을 편집한 로씨야작가 미하일롭스끼가 탐방기에 쓴 것처럼 호미와 화승총, 이것이 봉건수레를 끌고가는 당시 조선의 모습이였다. 자기 힘을 키울 땐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봉건통치세력의 무능통치에 의하여 나중에는 국권이 일제의 총칼에 강탈당하고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찌기 총대이자 민족의 운명이고 자주이라는 철리를 밝히시

고 총대로 민족자주위업을 개척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정도에 의하여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선군의 혁사가 흐르게 되었다. 강대한 미일 두 제국주의세력을 타승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한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선군령도의 위대한 승리였다.

지구상에 지배세력, 침략세력이 있는 한 군력강화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 제일중대사이다.

에 수령님께서는 남들이 제국주의압력에 굽복하여 겁을 보습으로 바꾸고 땅크와 대포를 녹여 끌어모으고, 탈곡기를 만들 때

에도 자위의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우리 나라를 반제자주의 강력한 보루로 다시시켰다.

조국을 잃으면 죽은 목숨과 같다.

땅국노가 되지 않으려거든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하신 그이의 가르침은 지구상에 제국주

의 침략세력이 있는 한 선군의 길을 끝까지 가고가야 한다는 뜻이 담긴 간곡한 당부이다.

강한 군력에서 자존심도 생기고 배짱도 나오고 그 어떤 강권이나 전횡에도 굽신거리지 않는 주권과 결단도 생긴다. 때문에 총대는 정치적자주권의 상징이라 하고 정치의 보자기를 벗기면 군사라는 격언도 통용되여왔다.

선군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이고 실천이였고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반세기를 헤아리는 장구한 나날 군력강화에 최선을 다하시였고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강성번영의 활로를 열어놓으시였다. 선군령도의 전기 간 그이께서는 5 200여개에 달하는 인민군대 단위들을 현지지

도하시며 조국수호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침략군의 비행기들과 순항미사일, 항공모함에 대항할 대공무력과 방위수단이 미약한 탓에 78일간의 전쟁에서 무차별공습을 받고 혹심한 재난을 당한 전 유고슬라비아의 비국, 미국의 침략전, 정복전으로 두차례나 황폐화된 이라크의 운명, 불모지로 화한 아프가니스탄의 참상과 어떤 침략에도 대처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핵억제력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된 공화국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사랑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하시며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비범성을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고 걸으신 선군의 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라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선군으로 애국위업을 끌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지난해 8월 조선반도에 닥쳐왔던 위험천만한 사태가 평정된 것도 무진막강한 자위적억제력과 전군, 전민을 조국수호에 불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견결한 조국수호의지와 탁월한 군술과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 승리이다.

칠령과 오성산으로부터 서남 전선의 최남단 열점지역에 이르기까지 조국방선초소를 쉬임없이 찾으시여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고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으시여 위력한 전투함선들과 전술유

도무기체계를 비롯한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도록 하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정도에 의하여 나라의 군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수소탄까지 보유하여 침략세력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임의의 지점에서 임의의 시각에 최후멸망의 불벼락을 안길 수 있는 위력한 핵보유를 더욱 튼튼히 틀어쥐게 되었다. 미국과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 강화와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거들며 『제재결의』를 조작하고 술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전쟁의 짐은 구름을 물아오고 있는 지금의 일축죽발의 위기는 핵보유를 선택하고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 길이 얼마나 선견지명하며 천만번 정당하였는가를 증명하고있다.

지난 3월 인민군대의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

평양은 민족대단결의 본향입니다

오는 5월 2일은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김일성주석님께서 역사적인 4월 남북련석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대동강의 쑥섬에서 협의회를 진행하신 뜻깊은 날입니다.

풍치수려한 섬의 한복판에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세운 통일전선탑에는 그때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쑥섬협의회에 참가하였던 저의 시아버지(최동오)을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를 가리지 않으시고 몸소 이름들을 나란히 써주신 그 숭고한 뜻을 새겨볼수록 민족대단결위업에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들의 유훈을 만들어

이 땅우에 통일강성국가를 일떠세워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가슴에 사무쳐옵니다.

이제는 제 나이도 구십을 훌씬 넘기며 몸도 예전같지는 않지만 온 민족을 위해한 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그 숭고한 응지와 넓으신 도량, 대해같은 사랑과 은덕을 정녕 잊을 수 없고 후세에 남기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충동에 뜻이겨 이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류 미 영

1948년의 민족주의원로들은 그후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현공의 길에 서 참된 애국의 삶을 빛내였고 준엄했던 전쟁의 나날 민족이 안길 품,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찾아 주저없이 서울을 버리고 평양길에 올랐습니다.

4월남부련석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의 정객들, 반공에서 현공으로, 우국에서 애국의 길로 인생전환을 한 민족주의원로들은 거의 모두가 진정한 어머니 품, 평양에서 영생의 삶을 빛내였습니다.

쑥섬의 통일전선탑에 새겨진 하나하나의 이름들이 신미리애국렬사릉과 재북인사들의 묘에 그대로 빛을 뿐리고 있는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도 평양에 새겨지는 민족대단결의 역사가 얼마나 숭고하고 뿐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후날 평양을 찾아온 각이한 인생들도 하나와 같이 민족을 한 품에 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품, 평양에 참된 삶의 뒷을 내리었습니다.

1948년 그 잊지 못할 봄날에 민족이 안길 품이 있다고 호탕하게 웨치던 부모님들의 그 뜻깊은 말을 그로부터 33년후 남편 최덕신으로부터 다시 듣게 되었을 때 그 감동은 참으로 커웠습니다.

독립운동에 나선 아버지를 따라 7살때부터 이국살이를 한 몸이지만 남의 나라 군복을 입고 반공의 길에 잘못 들어선 탓에 해방후에도 미국이 쥐여준 총을 꼬나들고 민족대단합이 아니라 민족분열의 길, 반공의 길에서 치욕의 오점만을 남긴 남편이었습니다.

지난 전쟁때에는 남조선피뢰군의 몇 안되는 장성으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혔고 전후에는 피뢰외무부장관으로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에 동분서주했던 남편이였기에 미국과 박정희의 벼름을 받고 정처없는 타향길에 오르면서도 평양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남편이 1981년 선친의 묘소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평양을 다녀와서 하는 첫 말이 『우리에게도 집이 있소. 생의 뒷을 내릴 보금자리가 있단말이요.』라고 했을 때 저는 수십년전 평양길을 다녀온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때와 같은 감격으로 온밤 남편의 이야기를 경정속에 들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번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왔소. 주석님께서는 의산 최동오선생이 별세하기 얼마전에 『덕신이 못된 놈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있지만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옳은 길로 들어설 것이다.』고 하였는데 최선생을 만나니 의산선생을 다시 만나는 심정이라고 하시며 최많은 이놈을 너그럽게 용서해주시였소.

여보, 우리 주석님께서 계시는 평양, 선친들이 있는 우리 집으로 가지요.』

이렇게 되여 저는 이듬해인 1982년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처음으로 평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지켜주는 품

1948년 5월 평양에서 돌아온 시아버지님은 축하의 인사를 안고 찾아온 친지들앞에서 축배잔을 높이 들고 격동된 홍분을 이렇게 터놓았습니다.

『왜 정체화성의 속에서 공부를 하셨던 그 김성주학생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였소. 보천보에 물을 질러 왜놈들을 전률케 하신 그 민족의 영웅이 김형직 선생님의 자제분이시였거든.』

이제는 우리 민족이 안길 품이 있어. 그분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구제주이시야!』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대통운이 렸다고, 민족이 안길 품이 있다고 하는 시아버지의 열띤 토로에 모두가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빼앗긴 나라를 찾는다고 독립의 길에 나섰건만 이역만리를 방황하며 종경거지떼로 몰리우던

감격도 새로운 1982년 5월 3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금수산대양궁전(당시 금수산의사당)에서 저희 부부를 접견해 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양에 와서 인생의 마무리를 한 선친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해주시다가 점심시간도 되었는데 식사나 하며 계속 이야기하자고 하시면서 식사실로 이끄시였습니다.

양옆에 우리 내외를 앉히신 수령님께서 먼저 잔을 드시고 선생과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자고 하시면서 『우리 서로 연설을 하지 맙시다.』라고 하실 때 저는 감개무량해서 어찌 할바를 몰랐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잔을 비우지 못하는 저에게 이 술은 백두산에 있는 들쭉을 가지고 만든것인데 도수가 맥주보다도 약하므로 조국에 왔다가 유명한 백두산 들풀술이라도 마셔보는것이 좋다고 따뜻이 권하시였습니다.

량친부모들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에 저는 생전 처음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참으로 한가족이 둘러앉은 기분이였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역사에 대하여, 조국통일에 대하여, 번영할 민족의 래일에 대하여 오랜 시간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후 우리 부부가 조국에 영주하였을 때 또다시 반갑게 만나주시고 그분의 전사로서 『동무』라는 호칭으로 불리웠으면 하는 남편의 소청도 기꺼이 받아주시여 최덕신동무, 우리 함께 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길에서 생사를 같이 합시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으며 그에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중임도 맡겨주시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1986년 9월 조국에서의 영주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식상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만 만나뵈오면 먼 곳에 품었던 소망과 오늘과 래일의 염원까지 다 헤아려보시고 일순에 가슴이 확 트이고 눈앞이 환하게 앞길을 명시해주시며 사랑과 은정을 배풀어 주시는 김일성주석님은 참으로 저와 같이 반공을 하던 사람까지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민족의 일원으로 꼭 같이 포옹해주시는 자애로운분이십니다.』

저의 남편만이 아니라 각이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렇듯 지난날의 어지러운 잘 못까지도 스스로 뉘우치고 련공애국의 길을 택한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푸질 많은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해 이 세상 그 어디를 보아도 우리 수령님 같으신분이 없으며 오직 수령님의 품에 안길 때에만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자신의 삶도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위하는 애국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지난날 무슨 일을 했든 탓하지 않으시고 한 품에 안아 민족대단결의 길에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품에서 저의 선친들이 그러했듯이 저희 부부도 참된 생의 걸음을 크게 내짚을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드림없는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의 분렬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토고를 다하시였다고 하시면서 북파남이 합의하고 민족앞에 엄숙히 선언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의 3대기동, 3대현장이라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 1994. 7. 7.』이라고 새겨진 판문점의 친필비앞에서 다지신 그 맹세대로 원쑤들이 조선의 봉파는 시간문제라고 떠벌이며 『3. 3. 3봉파』요, 『연착륙』이요 뭐요 하면서 쾌재를 울리던 엄혹했던 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와 같은 조국통일로 작들을 몸소 발표하시고 수령님대와 꽃같이 민족대단결의 대하가 이 땅우에 도도히 굽이치게 하여주시였습니다.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199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종양연구토론회에 서한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시였던 때의 감격을いた을수 없습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끄시느라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파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파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것이라고 하신 교시를 저는 그 누구보다 커다란 감격속에 접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받아안고 온 토론회장이 우렁찬 박수로 진감할 때 저의 마음은 50년 전 4월남북련석회의 장에 들어선것만 같았습니다.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의 모든것을 불문곡직하시고 민족대단결의 한길에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넓으신 도량은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시였습니다.

사상과 리념, 주의주장은 초월하여 현재 애국의 소지가 추호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포섭하여 기꺼이 한길로 손잡고 나아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은 2년후 삼천리강토에 자주통일의 열망이 활화산처럼 타번진 혁신적인 평양상봉과 6.15자주통일시대를 안아왔습니다.

북남수뇌분들의 역사적인 2000년 평양상봉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으로부터 저희 부부가 받아안은 크나큰 사랑과 은정은 정녕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습니다.

온 겨레와 전세계가 격정과 환희에 넘쳐있던 그때 조국통일사에 일대 사변으로 되는 평양상봉행사에 저도 참가하였으면 하는 외람된 소망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이의 마음속 소원을 헤아려 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습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시기 저는 한 일군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저의 남편에 대해 추억해주시면서 북남수뇌상봉은 조국통일과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전민족적인 사업인것만큼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참가시켜 한다는 믿음을 배풀어주시였다는 가슴뜨거운 사연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대해 같은 은덕에 천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지 10여년세월이 지났건만 남편뿐아니라 저까지 민족통일운동사의 한복판에 다시 불러주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정이 너무 고마와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저는 혁신적인 평양상봉기간 목란관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영광의 자리에 민족적사변의 목격자로서뿐아니라 당당한 한 성원으로 참가하는 최상최대의 행운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4면으로 계속)

《미국인들도 조선음악을 좋아한다》

얼마전 기자는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재미조선인예술단 지휘자 리준무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리준무선생이 올 해에도 미국땅 한복판에서 광명성절음악회와 태양절음악회를 진행하였다는데 그에 대해 알고 싶다.

리준무: 뜻 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미동포예술인들과 미국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하는 경축음악회 《2월의 봄》을 지난 2월 13일 미국 뉴욕시 맨하탄의 브루클린극장에서 열었다.

미국땅에서 또다시 태양청송의 음악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맵짠 추위를 무릅쓰고 극장으로 모여 왔다.

500여명이나 되는 동포들과 유엔주재 조선대표부성원들, 유엔주재 여러 나라 외교관들, 미국사람들이 음악회에 참가하여 관람석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중에는 공연을 보기 위해 몇시간씩 걸리는 먼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음악회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열렬히 칭송하는 판현악 《발걸음》과 《불타는 소원》, 《승리의 길》,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고국인민들의 땅만에 넘친 생활을 담은 노래들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에서 절정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는 영연을 본 미국사람들은 조선음악이 자기들의 감정과 잘 맞는다. 《대단하다!》, 《잘한다!》며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그러면서 《최고의 공연이다!》, 《음악회를 통하여 김정은령도자의 위인상, 평양의 힘을 폐부로 느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수령송가를 울릴수 있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속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김정은령도자를 흡모하는 송가음악회, 승리의 음악회》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지난 4월 2일 같은 극장에서 진행된 《4월의 봄》 음악회에도 유엔주재 조선대표부일군들과 가족들, 로씨야, 중국, 까자흐스딴을 비롯한 유엔주재 여러 나라 대표부 외교관들, 미국인들, 각계층 재미동포들 수백여명이 참가하였다.

재미동포예술인들과 미국예술인들이 함께 출연한 음악회에는 바이올린 협주곡 《사향가》, 교향곡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중에서 제4악장 《우리는 맹세한다》, 판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녀성고음독창 《산으로 바다로 가자》, 《나는 알았네》와 같은 고국의 명곡들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에서 절정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는 노래 《불타는 소원》을 들은 미국인들과 남조선에 연주되자 국장안이 떠나 갈듯 한 박수갈채가 울리는데 하면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동포들도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전설적 영웅 이 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해방투쟁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그이를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모신 것은 조선의 큰 행복이라고 부러움을 표시하였다.

그리면서 최근 조미관계가 첨예한 속에서도 미국의 심장부에서 태양송가가 또다시 울려퍼졌다고 하면서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의 위상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기자: 다른 곳도 아니고 미국땅에서 태양송가음악회를 연다는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리준무: 사실 40여명의 관현악연주성원들을 모집하고 공연곡을 선정하여 편곡해서 나누어주고 그들의 심장의 울림이 되도록 공연을 진행하는것이 쉽지 않았다. 미국에는 작은 규모의 악단들이 많다. 그렇기때문에 연주가들을 모집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하지만 고국의 노래가 하나같이 훌륭하여 돈을 적게 받더라도 우리 악단에서 연주하겠다는 악사들이 이 적지 않다.

미국에서 공연할 때 노래 《불타는 소원》에 대한 반영도 대단했다. 노래 《불타는 소원》을 들은 미국인들과 남조선에 연주되자 국장안이 떠나 갈듯 한 박수갈채가 울리는데 하면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동포들도 있었다.

노래 《나는 알았네》의 가사중에서 《푸른들 한줌의 흙이 목숨보다 귀중한줄 나는 알았네》라는 표현이 정말 좋다. 어찌면 내 심중을 그리도 생동하게 담았는지 나는 자주 이 구절을 새겨보곤 한다. 이 노래를 들은 미국사람들도 꼭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하군 한다.

기자: 리준무선생은 노래 《발걸음》을 특별히 좋아하는것 같다. 뉴욕에서도 그렇지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올 때마다 이 노래를 무대에 올리지 않았는가.

리준무: 노래 《발걸음》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노래이다. 기백넘치는 이 노래를 들으면 김정은원수님의 배짱을 보는것만 같다. 또 그이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온 겨례가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소리가 들리는 것같아 힘이 용솟음친다. 이 노래가 울리면 미국인들도 박수를 쳐가며 열광하군 한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마음속으로 열렬히 흡모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땅에서 태양청송의 노래들을 더 높이 울려가겠다.

(3면에서 계속)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이렇듯 숭고한 민족대단결의 웅지와 하늘같은 덕망에 끌려 지난날 각이한 정치행로를 걸어왔던 남조선의 정계 인사들과 오래동안 반공화국선전의 나팔수로 되어왔던 언론인들은 물론 대기업가들과 종교인들, 이전 군장성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6.15자주통일시대에 련북통일애국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온 삼천리강토가 감동의 환희로 물어번지던 혁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은 민족의 태양을 따라 7천만겨레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면 능히 민족의 통일을 이루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일훈풍이 북파 남을 뜨겁게 달구던 그해 8월 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끌려주신 크나큰 은정을 받아 안고 제1차 북남 헤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 북측 단장으로 서울에 나가 수십년동안 한시도 잊은적 없었던 사랑하는 혈육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3박4일이라는 짧은 나날을 보내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녘동포들이 진귀한 꽃바구니를 삼가 뛰어올리고 각종 귀하고 뜻깊은 선물들과 감사의 편지를 앞을 다투어 드리는것을 목격하면서 민족의 구심점을 우러르는 남녘인민들의 마음, 평양으로 흐르는 흠토열풍을 직접 체험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6.15통일시대의 벽찬 흐름을 타고 하늘과 땅, 바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의 물결이 뜨겁게 굽이쳤습니다.

온 겨례가 6.15시대 조국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당당히 나선 반면에 외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들이 설자리를 잊고 혁사의 기슭으로 거품처럼 밀려나는 놀라운 사변들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민족대단결의 용용한

대하를 이루어내시였을뿐 아니라 그것을 선군으로 굳건히 지켜주시였습니다.

불철주야의 선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북파 남의 겨례들이 평양과 금강산, 서울과 제주도 등 삼천리 강산의 방방곡곡을 오가며 통일잔치를 성대히 진행 하도록 해주시고 외세의 침략과 도전속에서도 민족대단결의 화원을 가꾸어오시였습니다.

선군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의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민족통일의 활로, 민족대단결의 대통로가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수 있습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의 미래가 꽂펴나는 품

민족의 대단결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통일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지향이며 민족의 봉친 힘에 희망찬 통일번영의 미래가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비운에 잠겼던 우리 민족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순길에 이끌려 그처럼 무서운 힘으로 떨쳐일어나 자랑찬 선군승리의 개가를 울리며 불패의 혁강국, 자주의 백두산대국으로 세계를 주도해나가는 오늘의 눈부신 현실에서 저는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백두산민족의 단결의 구심점도 영원합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또 한분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혁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염숙히 선언하시였습니다.

세계의 한복판에 높이 솟아오르시여

는 2013년 선군절에 즈음하여 발표하신 선군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밀천을 마련하시였다고 하시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확신합니다.

평양의 하늘가에 6.15자주통일시대, 민족대단결의 우렁찬 함성이 터져오르게 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운명, 대단결을 굳건히 지켜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금문자로 영원히 아로새겨질것이라고.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변함없이 받아들여 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땅에 기어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통일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 한없이 넓고 깊고 뜨거운 위인적풍모를 크나큰 흥분과 격동속에 가슴깊이 절감하였습니다.

민족의 하늘, 운명의 태양이 신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겨례를 품어안으시고 민족대단결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년전 12월, 민족대국상의 나날 어버이장군님의 영전을 찾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일행, 문형진 세계평화련합 회장에게 각별한 은정을 베푸시였습니다.

온 나라 인민들이 때식마저 잊고 피눈물을 씹어 삼키던 그때 원수님께서는 조의방문으로 평양에 온 해외동포들을 위해 목란관에서 위로연도 차려주시였습니다.

위로를 받으셔야 할 상주께서 오히려 조객들을 위해 민족적향취가 풍기는 조선음식을 맛보도록 몸소 식사차림표까지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세심한 사랑을 부어주신 그 뜨거운

여성들의 일기를 고증

《은하수》 화장품

평양화장품공장은 질좋고 깨끗하게 하며 보습과 다양한 《은하수》 표화장품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공장의 《은하수》 화장품들은 지난 시기 전국품질관리성과전시회에서 여러 차례 높은 평가를 받았을뿐아니라 2월2일제품등록증을 수여받은 자랑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질은 퍼부에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가에 따라 평판이 자자하다.

이 공장의 《은하수》 화장품들은 유리칼고착제와 알로에 살결물 등도 우수한 품질로 하여 평판이 자자하다.

이 공장의 《은하수》 화장품들은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은하수》 화장품의 질을 세우면서도 한번 형태를 잡아놓으면 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이 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인정미는 실로 만인을 감복시키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번 믿음을 주고 손잡아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주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과 정을 주고계십니다.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가 파국에 처한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과 6.15시대의 혁명을 함께 했던 이전 남조선 《대통령》과 기업가의 유고와 관련하여 그 유가족들에게 화환과 조선, 구두친서를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설 같은 동포애의 정과 숭고한 민족애는 이 땅에 민족대단결의 대하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는 근본원천입니다.

민족의 구성원들을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품은 정녕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위대한 품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일떠세우시려는 우리 민족의 더없이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이 행운이고 영광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미핵대결의 최후승리를 위한 선군혁명으로 그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2월 아흔다섯번째 생일을 맞는 저에게은 정어린 생일상을 또다시 보내주시였습니다.

저는 원수님의 대해 같은 사람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인 4월 15일에 즈음하여 새로 일떠서는 려명거리건설장에 저의 지성어린 마음을 고였습니다.

려명거리,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오고 민족대단결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하나로 응축되어 안겨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제가 남편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오려 여러 차례에 걸쳐 달려갔던 못잊을 거리, 우리 겨례가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찾아

《은하수》 화장품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살고있는 김옥실녀성은 《은하수》 크림을 사용하면서부터 퍼부에 탄력이 생기고 얼굴이 환해져 만나는 사람들마다 몰라보게 고와졌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은하수》 화장품만을 사용한다면 활짝 웃었다.

《은하수》 화장품들에 대한 손님들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은하수》 화장품의 질을 세우면서도 한번 형태를 잡아놓으면 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이 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 공장의 《은하수》 화장품들은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은하수》 화장품의 질을 세우면서도 한번 형태를 잡아놓으면 별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된다고 이 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축복받은 직포공영웅

은 은정에 보답하자면 아직도 멀었다며 웃었다.

첫사랑을 속삭이던 그때처럼

『시간을 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세대주에게 가 닫긴 심장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

그 말이 문강순의 굳게 안합니다. 세대주에게 가 닫긴 심장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들의 결혼은 만사람의 축복을 받았다. 어려서 부모를 잊은 문강순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구실을 자 기들이 해야 한다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멀쳐나섰다. 그 후 새생활의 보금자리를 편 문강순은 떡풀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갓 태여난 아기가 긴급수술을 받게 될 줄이야… 그때

지난 3월 8일, 국제부 혁신자. 온 나라가 아는 최고인 무대에 나선 로령영웅 문강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꽃같은 처녀시절부터 직포공으로 일해오면서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름난 로령

혁신자. 온 나라가 아는 최고인 무대에 나선 로령영웅 문강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꽃같은 처녀시절부터 직포공으로 일해오면서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름난 로령

공장적으로 소문난 혁신자

직포기들이 『바다』를 불수록 경란을 자아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금순직장은 문강순동무는 작업시간에 한순간도 헛눈을 팔 때가 없다고,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해 바삐 뛰어다니다가 도갓 들어온 노동자들이 기대를 잘 다루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 차근차근 배워준다고 말하였다.

기대들사이를 날렵하게 오가는 그의 일솜씨는 때마침 그가 잠깐 걸음

을 멈춘 틈에 가까이에 다가간 기자는 기대의 동음을 누르기라도 하듯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었다. 했건만 문강순은 일손을 멈추지 않은 채 머리만 돌려 눈인사를 했다. 쌩가풀진 눈가에는 량해를 구하는 미소가 어려있었다. 집단의 사랑을 받는 혁신자가 역시 달랐다.

문강순영웅은 올해 년간생산계획을 3월 6일까지 완수했다고 한다. 그가 속한 직장도 올해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는데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는다고 묻는 기자에게 문강순은 평범한 자기를 온 나라가 아는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

장애자가 공훈예술가로

얼마전 TV를 통하여 조선장애인예술협회 예술소조 공연이 방영되었다. 이들의 공연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시력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과 민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되고 능란한 기악연주솜씨, 환홀한 예술의 세계에로 이끌어가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률동…

비록 장애는 있어도 공화국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럽없는 자기들의 밝고 명랑한 생활을 노래춤에 담아 펼쳐보인 장애자들속에는 가야금연주인이 김원균명청음악종합대학 공훈예술가 김명숙(60살) 선생도 있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21개의 가야금 줄우를 두손으로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정확한 음을 짚어가는 것도 놀라웠지만 풍만한 음량과 독특한 음색, 세련된 가야금연주 기법은 더한층 경란을 불

려일으켰다.

무릇 정상사람들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것이 예술이라고들 한다. 더구나 시력장애인으로 연주하여 예술계에 파문을 일으킨 김명숙이었다.

나아린 그의 남다른 예술적재능을 소중히 여기시고 높이 내세워주신분은

족악기를 가지고 전통음악 밖에 연주할수 없다던 기성 관념을 깨고 현대음악을 자유자재로 연주하여 예술계에 파문을 일으킨 김명숙이었다.

나아린 그의 남다른 예술적재능을 소중히 여기시고 높이 내세워주신분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 속에 김명숙선생은 지난해

에 조선장애인교류단의 한 성원으로 영국파 프랑스를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이들의

공연을 본 수많은 외국인들은 『장애자들이 어떻게 이렇듯 훌륭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출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육체가 정상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우월한 장애자 보호정책과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조선의 현실을 보았다.』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자고로 장애자라고 하면 불행의 대명사로 되여왔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장애자들이 사회적보호는 고사하고 극심한 차별과 따돌림속에 폭력과 학대의 희생물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인간존중, 인간중시, 인간사랑의 정치가 꽂

펴나는 공화국에서는 김명숙녀성만이 아닌 모든 장애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세상에 부럽없는 삶을 누려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장군께서는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 가야금연주가로 있는 김명숙선생이 민족기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공

행복을 노래한다고

하기에 김명숙선생은 궁지놓이 말한다. 장애는 있어도 불행을 모르는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

일이라고, 자기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해도 심장으로

가하시며 공행복을 노래한다고

본사기자 흥법식



대 공로자로 내세워준 값

높은 부름과 사랑의 금반지, 귀한 보약들에도 어려있었고 조선청년친선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외국방문의 길에 올랐던 나날에도 어려있었다.

문강순은 어버이장군께서 로령영웅으로, 선군시대 공로자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 훌륭한 동무라고 하시며 그에게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러시고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한 그에게 창전거리의 궁궐 같은 새 집도 안겨주시고 몸

소 친아버이가 되시어 새집들이까지 축복해주신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순간도 잊지 못하고 있는 문강순영웅이다. 이렇듯 한없이 온혜로운 사랑의 품에 문강순영웅만이 아닌 온 나라의 여성들 아니 온 나라 인민이 안겨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문강순영웅은 더 많은 천을 짜는것으로써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온넋을 불태우고 있다.

자기가 짜는 한필 한필의 천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 할수만 있다면 열백밥을 지새워도 힘들지 않다는 그의 모습에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만리마를 타고 내달리는 이 나라 여성들의 아름답고 강직한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하늘같은 사랑의 끝은 어디

문강순영웅의 가정을 찾은 우리는 절세위인들께서 이들부부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가슴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절세위인들께서

평범한 한 여성로동자에게 돌려주신 하늘같은 은정은 위대한 장군님에게 드리기 위해 아글라를 애쓰는 동무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감동되어 찾아왔다.』고 진정을 토로했다.

지난 4월 1일 개학날을 맞으며 장월구평양상업종합대학에 신입생들이 입학하였다.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는 몇 해 전 남조선당국의 유인락치행위의 희생물이 되여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구원되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긴 리광혁, 장국화학생들도 있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평양금성제1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리광혁학생은 장월구평양상업종합대학 봉사학부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하였다.

기자와 만난 리광혁학생은 『학급동무들이 하나같이 좋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론도 하고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재미있게 보낸다.』고 말하였다.

리광혁학생과 한날한시에 같은 대학 봉사학부 편의봉사학과에 입학한 장국화학생의 기쁨도 끝이 없다.

자애로운 아버지 김정은원수님의 품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사람 못살 남쪽땅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갖은 천대와 멸시속에 시들고 있을것이라고 말하는 장국화학생이다.

장월구평양상업종합대학의 박철우, 김철산교원들은 『온혜로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대학에 입학한 리광혁, 장국화



본사기자 류현철

미국의 대조선 《제재》의 범죄적 진상을 해부함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폭풍치며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무적필승의 기상에 절집한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대조선 《제재》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파 거리들은 유엔 《제재결의》 제2270호를 조작한데 이어 일본, 남조선과 함께 《독자제재》 놀음까지 벌린 것도 성차지 않아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금수품 목록》을 《제재 항목》에 추가하고 《총격》이나, 《끌장》이니 하며 비린청을 돌구고 있다.

여기에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대조선 《제재》는 가장 악랄한 자주권 유린 행위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핵을 개발하고 위성을 발사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제재는 북조선이 자초한 것》이라느니 뛰니 하고 역겹게 놀아대고 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날강도적인 궤변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우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그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한 것도 없으며 죄를 따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따져야 한다.

우리의 핵과 위성개발을 《제재》의 이유로 내들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며 극악한 자주권 유린 행위이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핵범죄자는 다른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수십년 전부터 남조선에 1 000여개의 핵무기를 끌어다놓고 우리 공화국에 끊임없이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이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위를 위한 핵무기보유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세상에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원쑤 앞에서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앉아서 죽음을 당할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평화적 위성개발 역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 국가의 당당한 권리로서 어떤 경우에도 문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이니 뛰니 하며 우리의 위성발사를 한사코 걸고들고 있다.

우주로 가는 길에 미국의 대문이라도 있고 국제사회가 미

체버린 어중이떠중이들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제재》 속에서 자력자강으로 강국건설의 성공신화를 창조하며 배심 있게 살아온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대조선 《제재》가 마치도 국제사회의 《총의》인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범죄국가》로 매도하는데 대해서는 추후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 범죄적 진상을 파헤쳐 론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는 우리 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미제의 《제재》 책동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들이 당한 가슴아픈 회생은 그에 대한 혁사의 고발장으로 되고 있다.

이번에 미국이 조작한 유엔 대조선 《제재결의》만 놓고보아도 군사분야는 물론 무기개발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인민 생활필수품들 지어는 일반식료품들과 어린 아이들의 놀이감까지도 《제재항목》으로 규제해놓았다.

이것이 바로 대조선 《제재》를 통해 더욱 날날이 드러난 미제의 비렬하고 잔악한 정체이다.

미국식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저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나라들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제재》를 가하며 나중에는 침략 전쟁으로 태고았는 것은 미국의 전형적인 지배수법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리유는 결코 핵과 위성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동방일각에 사회주의 보루로 거연히 솟아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인류에게 현실로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 미국이 정한 국제질서와 딸라의 지배에 얹매이지 않고 자기 식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철저한 반미자주적립장에서 서서 미국의 세계제패 전략실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재》 소동에 열을 올리는 미국의 진짜리 유이다.

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이고 파렴치한 자주권 유린인가.

대조선 《제재》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산물

미국이 유엔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제재결의》나 《의장성명》을 날조하고 거기에 《성원국들의 총의》니, 《국제사회의 요구》니 하는 보자기를 쓰워왔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유엔의 대조선 《제재결의》 역시 예외로 되지 않으며 1990년대부터 이렇게 날조된 것 만 해도 7건이나 된다.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미국의 독단치기, 강권과 전횡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국가는 평등하며 그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자기의 요구와 의사를 강박할 권리가 없다.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으로 2 518만원이 된다고 하지만 실지 액수는 그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여론의 평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버이련합〉》이 단체보

〈새누리당〉이 말하던 〈민심 반영집회〉라는 것들이 파연 어垠 것들이었던지 이번에 그 속 옷까지 말짱 드러나게 된셈이다.》라고 규탄하면서 그에 대한 진상해명을 요구해나섰다.

그런데 지금 유엔은 미국의 드러났다.

《〈어버이련합〉》의 사무총장이 저들이 청와대의 지령밀에 각종 시위와 집회들을 조직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사가 성원국들의 《총의》로 외곡되고 미국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죄 아닌 죄를 들씌워 마구 몰아대고 심판하는 재판정처럼 되어버렸다.

오죽하면 국제사회에서 유엔 본부를 미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겠는가.

미국이 찍하면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 가는 것은 유엔을 자기의 거수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껏 유엔에서 채택된 대조선 《제재결의》라는 것들은 그 모두가 미국이 고안해내고 다른 나라들에 강압적으로 내리며 날조해낸 것으로서 결코 유엔 성원국들의 《총의》가 아니다.

이번 유엔 《제재결의》 제2270호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따라 그 추종세력들의 너절한 흥정판에서 조작된 미국을 위한 《결의》, 미국이 주도한 《결의》라는 것이 세계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우리가 이러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 조작을 범죄로 락인하고 전면 배격한 것은 너무나도 옳당하다.

미국이 결핏하면 《위반》이니, 《도전》이니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반하였다면 바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단호히 반대한 것이고 무엇에도 도전하였다. 미국의 침략과 지배주의 정책에 당당히 맞선 것이며 무엇을 거부하였다. 미국에 의해 좌우지되는 유엔의 이 중기준을 강하게 문제시한 것뿐이다.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약속한 준수조항을 어기고 우리에게 핵위협을 가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할 때 대한 유엔 결의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마땅히 피고석에 앉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야 할 범죄국가이다.

지금의 핵대국들 가운데는 《바지를 팔아서라도 핵을 가져야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제재와 압박을 무릅쓰고 핵보유를 강행한 나라들도 있다.

그들이 지금은 전망중에라도 결린 것처럼 우리의 핵과 위성개발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제재》 소동에 광분하는 미국에 합세해나서고 있다.

오늘 대조선 《제재》에 참가한 나라들이 래일에 가서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지금 유엔은 미국의 목밀에 총 7 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 단적 실례이다.

《〈어버이련합〉》의 부정자금은 당국으로부터 받은 것만이 아니다.

최근 《〈어버이련합〉》이

지금이야말로 세계가 대조선 《제재》의 진상을 똑바로 가려보고 그 후파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이 세

상에서 말썽거리를 빚어내는 《문제국가》가 과연 누구인가를 행철하게 판별하여야 할 때이다.

대조선 《제재》는 《제도 전복》을 노린 흉악한 범죄

미국은 대조선 《제재》의 목적이 《비핵화》에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핵무기를 고스란히 내놓으면 《제재》도 없을 것이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너두리를 들어놓고 있다.

이미 명백히 한바와 같이 우리의 핵은 《제재》와 맞바꿀 그 어떤 흥정물이 아니며 무엇이 부족할 때 저당잡히는 호구 지책수단도 아니며 그 누가 유틸장을 놓는다고 순순히 가져다바칠 물건은 더욱 아니다.

미국이 비핵화가 그토록 소원이라면 이 세상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이고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저들부터 비핵화 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저들의 핵무기는 당반우에 올려놓고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인 우리의 핵을 일방적으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지금 미당국자들 속에서는 《북조선의 핵을 제거하자면 정권교체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번 대조선 《제재결의》가 유엔력사상 《가장 강도 높은 제재결의》이며 늦어 서 6개월, 빠르면 2~3개월이면 그 효과가 나타나 북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참수작전》이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혼란과 동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하여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시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그 《증거》를 만들어내느라 조급성까지 보이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가소롭기 그지없다.

이것은 미국이 떠드는 《비핵화》를 위한 대조선 《제재》란 결국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의 전력사는 천민군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 단결하여 적대세력의 곤질긴 고립 압살과 《제재》, 봉쇄책

액의 돈을 주었겠는가 하는 것은 뻔하다.

이렇게 받은 돈을 《어버이련합》은 청와대의 지시밀에 보수당국의 반역정책을 지지하는 집회와 시위들을 벌려놓고 여기에 몇 푼의 돈으로 매수한 《탈북자》들까지 동원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극우보수분자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권력을 부지해온 청와대의 비렬한 음모와 통치수법은 이번의 사실폭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실은 청와대야말로 《어버이련합》과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을 막후조종하는 깡패집단의 소굴이며 온갖 범죄를 냉정한 악의 소굴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실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 응철

극우보수단체들을 움직이는 배후조종자

조금밖에 다른 돈을 받아 당국의 지령대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탈북자〉들을 리용한 대응성, 훼방성 집회를 따라세운 진상이 드러난 것은 그것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세상에 드러난 장부의 실태만 보아도 이럴 진대 지난 시기 오래동안 계속되여온 《어버이련합》 집회의 실체가 무엇이였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당국과

청와대가 부정해나서고 있지만 불 안팎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는가.

따지고 보면 《어버이련합》은 이러한 명목으로 당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어버이련합》의 고문이 대표로 있는 《사랑의 실천국민운동》과 역시 그가 대표로 있는 《청소년화랑소년육성회》가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의 명

괴뢰파당이 집단유인립치해간 우리 공민들을 돌려 보내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대응이 개시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박근혜역적폐당이 얼마전 해외에서 침행한 우리 공민들에 대한 집단적 유인립치만행은 지금内外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당은 날로 높아지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위상을 꺾어내리고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이목을 떤데로 돌려 『총선』에서의 대참패를 보면 해보려는 비렬한 목적밀에 지난 4월 초 피뢰정보원 깡패들을 내몰아 적수 공권의 우리 공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립치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전대미문의 특대형 국제례로 행위를 침행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빈폭한 침해이고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다.

우리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피뢰파당의 악마적 행위를 준렬히 규탄단죄하면서 립치한 우리 공민들을 지체없이 무조건 돌려보낼 것과 립치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에 처하거나 신성한 우리 법정에 넘기며 우리족 가족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실무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피뢰당국과 적십자 단체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당은 그 무슨 『억지 주장』이니, 『자유의사에 따른 집단탈북』이니, 『국제 판례상 가족대면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느니 뛰어난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작정 거부해나서

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철두철미 박근혜년이 피뢰정보원 깡패들을 내몰아 침행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집단유인립치만행이다.

우리는 피뢰정보원놈들이 무고한 우리 공민들을 남조선으로 유인립치하기 위해 처음부터 어떻게 사전작전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으며 그 증거도 가지고 있다.

박근혜년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피뢰정보원 악당들은 이미 전부터 돈으로 매수하였던 인간쓰레기들과 중국현지의 거간군들과 공모하여 다른 나라에 새로운 식당을 전개한다, 이동봉사할 현지를 돌아본다고 하며 천진한 우리 여성공민 12명을 속이고는 동남아시아나라로 유인하여 남조선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하였다.

피뢰정보원 깡패들은 우리 여성공민들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3국이 아니라 남조선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항거해나서 그 무슨 『특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기만하면서 그들 모두를 강제로 남조선으로 끌고갔다.

그야말로 회세의 대결분자, 천하 만의 무리인 박근혜당만이 침행할 수 있는 극악한 반인륜적 만행이다.

박근혜당은 우리 공민들을 독방에 따로따로 가두어 넣고 일체 보도관제를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격폐시켜놓은 상태에서 회유와 기만, 위협

과 공갈 등 갖은 비렬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귀순』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우리 여성공민들은 조국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단식투쟁을 벌리고 있으며 일부 나이 어린 처녀들은 실신 상태에 빠져 생사 기로에 놓여있다고 한다.

회유기만의 방법으로 우리 여성공

민들을 강제로 남조선까지 끌고간 것

이 용납할 수 없는 날강도적인 범죄 행

위라면 악착한 『귀순공작』을 벌리

는 것은 그에 백배, 친배로 죄악을 덧

쌓는 것으로 된다.

피뢰정보원 깡패들의 귀축 같은 범

죄적 만행은 지난 전쟁 때 우리 어린이

들을 어머니들의 품에서 떼여내여 방

공호에 따로 가두어 넣고 온갖 고통을

가하던 끝에 불태워죽인 미국놈들의

야만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여성공민들이 그 무슨 『자유 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을 독방에 따로따로 감금

하고 외부와 격폐시킨 채 자기의 의

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들이 침행한 집단유인립치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바빠맞은 자들의 천추에 용납 못 할 날강도 악행으로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더우기 간파할 수 없는 것은 피뢰파당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북체제에 대한 회의』니, 남조선에 대한 『동경』이니 뛰어나 하는 나발까지 내뱉고

있는 것이다.

괴뢰파당에 의해 유인립치된 우리 공민들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기 고향과 부모형제들을 버리고 남조선으로 갈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들은 모두가 우리 공화국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마음껏 배우며 자라난 행복동이들이며 자기들을 먹여주고 키워준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그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던 귀한 딸들이다.

인민대중 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 사회주의 제도에서 모든 꿈과 이상을 꽂고 키운 그들이 아비규환의 생지옥인 남조선을 『동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괴뢰파당이 그 무슨 『국제 판례』를 운운하면서 부모와 자식들 간의 대면마저 차단하는 것은 반인륜적 만행의 극치이다.

생리별을 당한 부모와 자식들이 하루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국제 판례이며 인도주의이다.

박근혜당은 부모와 자식들이 직접 만나 의사를 확인하게 하자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부모의 품에서 떼내여 단란한 가정을 파괴한 박근혜역적폐당은 이제 더 이상 『인권』 타령을 늘어놓을 한조각의 체면마저 완전히 상실하였다.

강제로 유인립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리산가족』을 만들어내는 그 주제에 남조선 피뢰당은 더는 흘어진 가족, 친척 상봉이요, 인도주의 문제 해결이요 하는 것을 입에 올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박근혜당의 천인 공노할 특대형 집단 유인립치만행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아수의 무리들을 죽탕쳐버릴 천백 배의 보복의지로 폭을 끊이고 있다.

초래될 엄중한 후파도 가슴하지 못하고 리성을 잃고 대결에 미쳐 날뛰는 박근혜당은 비인간적인 립치 행위를 합리화해보려는 억지 주장과 막무가내식 날강도 적행위를 당장 걸어치우고 무고한 우리 여성공민들을 무조건 즉시 송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일치한 요구대로 그들이 서울에 나가 자식들을 직접 만나 테리고 올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야 한다.

만일 피뢰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계속 도전적으로 나온다면 이미 천명한 대로 이번 사건을 조작한 청와대와 정보원 깡패집단을 비롯한 도발자들을 겨냥한 무자비한 천백배의 대응이 개시될 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비극적인 후파에 대해서는 피뢰파당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주제 105(2016)년 4월 28일 평양

내가 직접 목격한 비렬한 유인립치극

을 찾았던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서 명백히 말하건대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순진한 우리 동무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나도 이번에 해외에서 그들과 함께 식당일을 하다가 여차하면 남쪽에 끌려 갈뻔했던 사람이다. 나와 우리 동무들이 몸담고 일한 『류경식당』은 중국 절강성 네파에 자리잡고 있다. 지배인이였던 허강일놈은 사전발생당일 날 출근한 나를 불러 오늘 식당을 읊울드렸는데 접대조장으로서 인원관리를 잘해야겠

다는 말과 함께 불속 이제 비행장에 가면 정보원 사람들은 마중나온다는 소리도 하는 것이였다. 깜짝 놀랐다. 그 순간부터 나는 속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한 시바삐 동무들한테 무서운 사실을 알려줄 생각을 하고 어려모로 애쓰던 끝에 3명의 동무들에게 먼저 알림으로써 그들은 탈출에 성공하였다. 다른 동무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서둘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후 인원 점검을 통해 3명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허강일놈은 어디엔가 급히 전화를 하는 것 이였다. 좀 있자 식당뒤에 차가 도착했다. 허강일놈은 부랴부랴 차에 먼저 7명의 처녀들을 태웠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5명의 다른 동무들도 별다른 생각없이 순순히 차에 올랐다. 그런 와중에 나와 마주쳐 사실을 알게 된 2명의 동무들이 탈출에 성공하였다.

나와 다른 한 동무는 손님이 찾아와 끼여드는 바람에 다행히 허강일놈과 정보원놈들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끌려간 다른 12명의 동무들도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절대로 차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바로 이러하다. 놈들이 떠드는 것처럼 『집단탈북』인 것이라 아니라 돈에 환장하여 이미 인간쓰레기로 전락된 패륜파덕한 허강일놈을 리용하여 남조선의 정보원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작한 집단적인 유인립치이다. 놈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동무들의 실태를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고 철저히 차단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번 사건이 철저한 유인립치극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확인하건대 우리 동무

들은 부모형제와 정든 집, 조국을 버릴 그런 사람들 이 아니다. 따사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마음껏 희망을 꽂고 키우며 자란 우리 동무들이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과 같은 남조선이 뭐가 좋아서 제발로 스스로 찾아들어가겠는가.

백주에 순진한 처녀들을 립치하여 한순간에 혈육을 갈라놓고 온갖 고통을 들씌워놓고도 『자진탈북』이라고 고아대며 지금도 회유와 기만, 『귀순공작』을 악랄하게 벌리고 있는 남조선의 정보원놈들과 박근혜당에게 묻고 싶다.

너희들도 인간인가.

무지막지한 헤로 깡패 행

위로 단란한 가정들을

파괴하여 생리별 시켜놓은 악귀들, 부모자식 간의 혈육의 정도 모르는 행렬한들, 인간쓰레기들.

우리는 동무들이 보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품으로 그들을 당장 돌려보내라.

최례영

남조선의 박근혜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행각한다고 한다.

미국의 대이란제재소동에 적극 가담하여 가장 악질적으로 놀아낸 박근혜가 이제와서는 언제 그랬던가 싶어 치마를 끌고 추파를 던지며 이란을 행각하겠다고 하니 철면피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다.

5월 1일은 전세계로 자수되는 명절이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가기 힘든 남조선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명절은 고사하고 언제 일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날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5.1절을 명절이 아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날로 정하

무기) 감시센터』라는 것을 조작하였으며 인간쓰레기들로 조직된 『북한 맹명 펜센터』라는 모략단체는 다음달 5일 서울대학교에서 『북인권 토론회』를 벌려놓는다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이것은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열흔이 빠진 자들의 단말마 적발악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미국과 박근혜역적무리를 비롯한 적대세력은 공화국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막지 못해 전전 궁금하고 있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여 광란적인 북침 핵전쟁 연습도 벌려놓고 유엔의 거수기들을 동원하여 반공화국 초강도 『제재』와 『압박』도 해보았으나 모든 것

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의 현실이다.

물에 빠진 자 지푸래기라도 잡는다고 궁지에 몰리

고 악이 날대로 난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은 저들의 범죄적인 대결소동에 버리지 같은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된 것이다. 그 정상이 얼마나 가공한가.

그런다고 하여 사태가 달라질 것은 조금도 없다.

조국을 배반하고 온갖 사기 협잡으로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가고 있는 인간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소리를 이제는 국제 사회계도 신물이 나서 외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온 겨레의 종오와 저주를 받는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그 무슨 『망명 정부』라는 것을 만들었자 국제 사회계의 웃음거리로 밖에 될 것이 없다.

지금 신성한 공화국 공민들을 10여 명이나 유인립치한 박근혜역적폐당의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

인 망동에 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더우기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하고도 모자라 그 누구의 『인권』을 운운하는 역적 폐당에 대한 분노는 그대로 『만고역적 박근혜당을 죽탕쳐버리라』, 『청와대를 통제로 날려보내자』라는 서슬푸른 합성이 되어 이 땅, 이 하늘을 뒤흔들고 있다.

가소로운 망동도 한계를 넘어서면 무자비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박근혜역적폐당은 똑바로 새겨들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각도 공화국의 실전 배비된 핵타격 수단들을 비롯한 각종 타격 장비들은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악의 본거지들을 한순간에 날려보낼 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함정에는 빠지지 않는다고 박근혜는 아무데나 죄를 들이밀고 주둥이를 나불거렸던가 누구도 같이 춤을 추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뺨이나 얻어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재미난 곳에 범나온다고 『핵공조』니 뛰어오금에 바람찬 계집처럼 아무데나 싸다

나다는 언제 어디서 무슨 벼락을 맞고 뛰질지 모른다는 것을, 또 쏘속 독재와 동족 대결만을 일삼던 『유신』 독재자의 저승길이 어떠하였는가를.

저승길도 준비하면 편안하다고 이미 산송장이 된 박근혜는 제 품수를 똑바로 알고 청와대 끝방에 꼭 배어서 황천길 준비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철호

『도피성 행각』이 시사하는 것은

4. 13 『국회』 의원 선거에서 받은 민심의 『정부심판』 론을 『국회 책임』 론으로 슬쩍 전가해놓고 그 여운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도피성 행각』을 하는 리 해타산도 있을 것이다.

이런 박근혜이니 해외에 나가 할짓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란이 핵대신 빵을 선택하였다.』 느니, 『북

현실적으로 지금 남조선 보수당국은 박근혜의 행각 놀음을 두고 『북에 대한 압박의미』니,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도출』이니 뛰어 하며 들키고 있다.

그야말로 아둔

최근 남조선에서 진행된 《국회》의 원선거는 정치무대에 일으킨 해일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적인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1

이번에 진행된 남조선 《국회》의 원선거는 이전에 진행된 선거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선거였다.

종래의 선거는 대체로 당 대당, 세력과 세력 간의 대결구도로 흘러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고질적인 틀이 마사지고 《박심》과 민심간의 대결구도로 선거가 치르어졌다. 이것이 이번 선거가 가지는 특징이고 중요한 의미이다.

일명 《박심》에 대해 말한다면 박근혜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 시기 각종 선거때마다 박근혜는 특유의 교활성으로 대중을 기만하여 보수폐당을 위기에서 진저내고 하였다. 그로부터 그는 《선거의 녀왕》이라는 별칭을 받고 보수층내에서는 《박심》을 얻으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여론이 나돌았다. 《친박》이라는 계보도 생겨났다.

권력을 쫓아 박근혜에게 가불은 이러한 세력들이 이번에도 《박심》을 선거에 최대로 리용하려 하였다.

이번 선거때에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누가 《박심》을 대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당선될 수 있는 기준으로 하여 《공천》을 진행 한데로부터 대다수 《친박》계 인물들이 《공천》되고 《비박》계 인물들은 거의나 배제되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과 같은 《공천》파동이 일어났다.

박근혜 역시 자기가 나서면 이길 수 있다고 탄생하고 이번 선거에 축군들을 대대적으로 내

투표가 말하는 남녘의 민심은

물면서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대구는 물론 충청도와 경상도 등 여러 곳을 좁아 하게 돌아치며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 《국민이 애당을 심판하라》, 《국회를 물갈이하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고 악평을 듣고 싶어졌다. 선거당일 날에는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의 옷을 차려 입고 투표장에 나타나 《새누리당》을 지지해 달라는 것을 표기로 암시하였다.

그러나 선거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의도, 언론들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끝났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빚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박근혜에 대한 민심의 하늘에 닿은 분노의 결과였다. 민심은 《국회를 심판》(야당심판)해 달라는 그의 말에 《정권》심판, 《박근혜 심판》으로 단호히 대답하였던 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사상 최악의 악권 분열 사태 속에서도 민족이 애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징벌 기류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에게 표를 찍어 준 것은 그의 요اس스러운 거짓말과 복지 《공약》들을 한번 믿어보자는데 있었다. 더 우기 너성인 그가 부드러운 정치를 하고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집권해서 언제 한번 남조선인민들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오직 저 하

나의 부귀영화와 권력 애심밖에 없다.

그가 해온 《정치》는 모두 자기 하나만을 위한 정치였다.

권력을 모두 손아귀에 틀어쥐고 1인파쇼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집권여당을 자기 말만 고분고분 듣는 사당으로, 《국회》를 한갓 거수기로 만들었다. 정보원의 권능을 보다 강화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사찰을 강화하였으며 독재권력을 반감을 가지고 대드는 세력은 모조리 《종북》으로 몰아탄았다. 언론도 철저히 권력의 나팔수로 길들였으며 진보언론은 강제 폐간하였다.

인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반인민적으로 동정책을 실시하고 그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는 차벽을 치고 최루액을 들씌워 강제 진압한 것도 박근혜 파쇼 《정부》이다.

동족을 모해하는 빠라는 《표현의 자유》로 비호하면서도 자기를 비난하는 빠리를 뿐 려다면 차치없이 잡아가두었다.

백성이 죽어가던 말건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말건 살기 힘들어 늙은 이들과 청년들이 자살을 하건 말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의 안일과 부귀만을 추구하면서 사대 매국, 파쇼에 찬 구린 몸뚱이나 가리우고 정체를 숨겨보려고 《패션 외교》에만 치중하였다.

부채 무능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고 도진 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시체 장사꾼》으로 모독하며 박해 탄압한 것도 박근혜 살인 《정부》이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종동으로 나가라》며 매몰차에 차던 진것도 청와대 악녀이다.

미국 상전의 광무니에 매달려 민족의 자위적 억제력을 없애 버리려고 《제재》와 압살 소동에 매달리고 반북 《인권》 모략 소동, 개성 공업 지구 전면 차단으로 북남 관계를 완전 파탄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몰아온 것도 천

하의 매국노인 박근혜이다.

그의 오만과 독선도 국도에 달하여 조금 자기 비위에 거슬려 청와대 서관이 건, 여당의 원내 대표인가 만족하지 않았다. 자기 한테 불은 《친박》 인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독사처럼 돌아댔으면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 《친박》이 새끼를 쳐 《친박》(진짜 친박), 《기박》(가짜 친박), 《쪽박》(쫓겨난 친박), 《울박》(울고 싶은 친박), 《수박》(수틀린 친박), 《짤박》(잘려나간 친박), 《흘박》(흘대 받는 친박), 《멀박》(멀어진 친박), 《걸박》(걸불 죄는 친박) 등 솔한 계파 내의 계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겠는가.

그 누구의 표현을 빙다면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거한 박근혜의 정치》만을 해온 특등 대국노, 폭정의 대명사인 고대로 마의 네로도 무색 캐 할 무서운 독재자가 박근혜이다.

남조선인민들이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찍으면서 품었던 한가닥의 희망마저 이제는 깡그리 날아났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원들을 《친박》으로 일색화 하려고 비렬한 《공천》 놀음을 벌리는 빤벤스러운 행위를 지켜보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저런 박근혜 애말로 한시바삐 들어 내야 할 폭군, 역사의 오물이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박근혜에 대한 인민들의 쌍이 고 쌍인 분노의 감정에 의해 《박심》은 선거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독》이 되어 《새누리당》의 참패를 몰아왔다.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친박》 후보들이 련이어 나열되었던 것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각성되고 분노한 민심의 분출에 《박심》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번 선거는 《박심》이 민심에 비해 볼 때 얼마나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민심이 바다라고 할 때 《박심》은 그 우에 뜬 작은 가랑잎, 그 가랑잎을 민심의 바다는 사정 없이 삼켰다.

남조선에서의 이번 선거는 민심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의 놀랄 만한 힘을 발휘하여 정치 지형을 바꾸어 놓고 오만한 《정권》과 여당 정치 세력 모두에게 정치에 대한 위압적인 경고장을 보낸 진짜 승리자들은 남조선인민들이다.

미국은 이번 선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였다. 선거가 눈앞에 박두해서는 애당이 물로 갈라져 선거를 치르었다.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 언론들이 선거에서 애당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 반대로 되었다.

이것은 이번 선거가 철통철 미 민심이 주도하고 민심이 승리한 선거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남조선의 주요 언론들과 전문가들, 외신들이 평한 것처럼 《민심의 폭발》, 《유권자 혁명》, 말그대로 《4·13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남조선의 한 단체의 연구 위원은 이번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에 대한 수도권, 특히 20대, 30대의 분노에 《더민주》가 반사리 익을 얻었고 호남에서는 《더민주》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국민의 당을 수단으로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돌이켜 보면 남조선에서 인민들은 커다란 힘을 발휘하군 하였다. 리승만을 거두어 뜨린 4·19 민봉기도, 박정희의 18년 독재에 종말을 고하게 한 부마항쟁과 광주인민봉기, 6월 민주 항쟁의 주역들도 다로동자, 청년 학생, 사무원들을 비롯한 각계 층 인민들이었다. 이 현명하고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인민이 언제나 독재 통치를 뛰어 넘고 반미의 초불도 지펴올리었다.

이번에도 투표로 암흑의 세상에 경종을 울린 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남조선인민들이었다.

그들이 투표를 통해 남조선 정치권 전반에 울린 메아리는 무엇인가.

정치인들이 정치의 근본을

바로 알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을 때 어떤 세력이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고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하였다. 정치가 인민을 떠나면 그것은 죽은 정치나 같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조선 정치에는 인민이 없다. 인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 당리 당락만 앞세우면서 인민들이 죽어 가는 내버려 두고 있다.

수백 명의 인명을 바다에 수장 시킨 《세월》호 참사는 죽은 남조선 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권력과 기업이 유착되어 배가 수장되고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사람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권력과 사회의 풍조와 무능이 귀중한 생명들을 앗아갔다. 그때로부터 2년이 더 지난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울부짖는 진상 규명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와 일부 시신은 권리와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아직도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선량한 사람도 죽어야 하고 진상 규명을 웨쳐도 누구도 들어 주지 않는 인권의 동로대가 남조선이다.

얼마나 남조선 정치가 대중의 혐오를 자아내고 남조선 세상이 살기 힘들면 사람들 속에서 《헬조선》이 하나의 유행으로 번져지고 있겠는가.

이 비참한 현실을 더는 놔 놓을 수 없기에 남녘 인민들은 《정권》에, 정치인들에게 자기들의 투표로 민심의 분노와 위력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다.

남조선의 정치인들이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저저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다는 진도 앞바다의 팽목 항을 찾은 것은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인민들을 기만하고 외면하면서 권력 유파 당리 당락에만 눈이 멀어 돌아친다면 민심이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는 것이다.

민심에 역행하여 북남 대결과 투표를 추구하며 민생을 해치는 세력에게는 앞날이 없다.

본사기자 김련옥



얼흔이 빨진자들의 가련한 비명소리

핵무력 강화에서 련이 이룩된 공화국의 자랑

최근 남조선의 통일부장관이라는 자가 《무리한 개최》이니,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친박》 계 태오른 중산의 불길과 그 속에서 이룩된 국산화, 현대화의 첨단 돌파구들…

70일 전투가 시작되어 근 한 달 사이에 황재혁 철련 합기 업소의 산소 열법 용광로에서 하루 주체 철생산 실적을 이전에 비하여 평균 2.4배로 올리고 김정숙령 양제 사공장에서 자체의 혁량으로 우리식의 프로그램과 자전기자동 온도 조종 장치를 작성, 도입하고 새로운 유약재료를 연구 개발한 것, 풍치 수리를 통해 보통 강기슭에 미래 상점과 종합 봉사 기지가 새로 건설되고 후대 사

친 송장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보았던 자들의 고집은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은 무자비한 정벌의 철추 밖에 없으며 공화국은 세상이 보란 듯이 70일 전투를 끝나게 결속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청년 강국 주민 공들의 충정의 선물로서 백두산 영웅 청년 3호 발전소가 완공된 사실 등을 바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그토록 떠드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 이룩된 공화국의 자랑

찬 성과물들이다.

지금도 공화국에서는 70일 전투의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어머니라 부르는 조선로동당에 한 가지라도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천만 명의 애국 적열의로 하여 좋은 성과들이 계속 이룩되고 있다.

미국 상전의 광무니에 매달려 민족의 자위적 억제력을 없애 버리려고 《제재》와 압살 소동에 매달리고 반북 《인권》 모략 소동, 개성 공업 지구 전면 차단으로 북남 관계를 완전 파탄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몰아온 것도 천



시급한 요구하는 국제적 대응을

《교도의 정서》가 대 표적 실례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도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기후변화 대회에서 많

은 나라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온실가스 방출량을 1990년에 비해 평균 5% 줄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도의 정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기한이 만료된 2012년까지도 각국이 비준하여 《교도의 정서》에 박아 넣은 온실가스 방출량 축감 목표는 종이 장의 수자로 만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국제 사회계는 《교도의 정서》보다 더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협약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리속만 추구하면서 합의 리행을 태

공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사업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사기자 주광일